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7. 24.(일) 14:00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7.24.(일) 14:0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는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첫 공식회의임
 - 금일 회의에서 ①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지난 7.14일에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②금융부문 민생안정 주요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였음
 - 아울러, ③최근 금리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하였음

※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상홍 (lsh0622@korea.kr)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재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이용준 (cjeye86@korea.kr)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whwns56@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85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jiho88@korea.kr)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팀 장 최창호 (02-759-4181)
		담당자	조사역 진형태 (htjin0603@bok.or.kr)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거시감독팀	책임자	팀 장 이민규 (02-3145-8172)
		담당자	선 임 송하균 (larrysong@fss.or.kr)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	책임자	본부장 정형민 (02-3705-6130)
		담당자	부전문 황재철 (jchwang@kcif.or.k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였고
금주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긴축의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라는
중첩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대외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도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대외 안전망 확충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7.19일) 엘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양국이 외환 관련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의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금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7.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여
서민·청년층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금리 전환대출(8.5조원)과 새출발기금(30조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준비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계획수립부터 집행·점검까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p 가량 하락('22.5월 기준 77.7→72.7%)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하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당국과 기관이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거시·금융팀,
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종료)